

# 순례의 치유적 의미

-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

박승민\*

- I. 시작하며
- II. 기독교 역사와 순례, 그리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 III. 순례의 치유적 의미: 산티아고 순례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속 주인공들의 심리 분석을 중심으로
- IV. 마치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순례가 갖는 치유적 의미를 산티아고 순례길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산티아고 순례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주인공들의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C. G. Jung의 분석심리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치유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갖는 의미는 2000여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 그리고 당시 스페인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겪으며 기독교문화를 뿌리내리려 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무의식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Jung에게 있어 치유란 정신의 전체성, 전인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의식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식하려 노력함으로써 의식화 할 수 있으며, 의식화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이 일어난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발견을

---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통해 순례자는 자신의 본질에 더 다가가게 되고 자신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여 왔는지를 찾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핵심어:** 순례, 치유, 카미노 데 산티아고, 분석심리학

## I. 시작하며

여행은 자신의 마음 속 본질과 만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여행은 지친 일상을 탈출하여 그간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임과 동시에, 미지의 낯선 곳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불러일으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준다. 현대인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각박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치유하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발현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은 생활에 지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sup>2)</sup>.

때문에, 최근에는 상담 분야에서도 여행 치료(travel therapy), 즉 여행이 주는 치유적 의미를 탐구하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고 있다. 아직 상담학 분야에서 공식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여행치료는 현대인이 여행을 갈구하는 것 만큼,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 자원과 계획에 의해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상담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승철 등의 조사<sup>3)</sup>에 따르면, 우리

---

2) 여행이 가지는 치유적 효과에 대해, 송영민과 강준수는 자연과 마주하고 또 자신과 마주하면서 스스로의 내면과 삶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도보여행이 갖는 치료적 효과를 프로이트와 라깡의 이론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송영민, 강준수, 「도보여행의 효과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관광학연구』, 38권 7호, 2015, 35-55”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이승철, 강찬구, 이민훈, 이은미, 『힐링을 힐링하다: 힐링열풍의 배경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897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 1쪽.

사회에서 공감, 위로, 치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마음과 정신의 상처에 대한 치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치료가 주목을 받는 것 역시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예일 것이다.

이처럼 여행이 우리 삶에 주는 치유적 의미에 대해 공론화된 공통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행이 주는 치유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담학 보다는 관광학이나 문화커뮤니케이션,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sup>4)</sup>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행과 순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순례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의식과 의미를 담은 여행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례'라는 말 속에 낯선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 문화와 맥락, 그리고 사람들을 경험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순례는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 생각, 신앙, 문화와 삶의 궤적을 그대로 밟아가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자신에 비추어 살아나갈지에 대한 통찰과 교훈을 얻어가는 길이 바로 순례길이라 생각된다. 한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의 발자취,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의 압축된 일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소를 돌아보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읽어내고 자신의 삶에 비추

4) 관광학, 문화커뮤니케이션, 교육학 등 분야의 논문들은 여행, 특히 본고의 주요 주제인 순례가 주는 치유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거나, 실제 순례객들의 경험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온오프라인 자료들과 문헌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논문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 박인정, 이영관, 「여행치료와 자기실현: 용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권 6호, 2016, 21-33.
- 임경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체험에 대한 평생학습적 의미」,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김치완,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道)」, 『인문콘텐츠』30집, 2013, 49-65.
- 민슬기, 「스페인 산티아고 길 도보순례의 의미와 소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어보는 것 역시 순례를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목도한 바를 통해 자신이 그간 살아 온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기 반영적 역량(self-reflective competency)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순례의 길은 험난한 고행의 길이다. 구분식<sup>5)</sup>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성지 순례를 하는 이들이 그토록 지난한 여정을 감내하고 기꺼이 순례에 참여하는 다양한 동기와 의미를 분석 및 정리하였다. 먼저 신의 존재를 찾아 신을 만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또 자신의 소망을 빌고 자신의 맹세나 의무를 실행에 옮기기 전 자신에게 하는 의식(ritual)의 의미로 순례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순례길에서 고행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기수행의 일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원기를 회복하거나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순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순례의 본질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종교인인지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순례에 참여하는 이유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삶을 좀 더 의미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지로 향한 여행을 통해, 각 개인은 삶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 기나긴 순례길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 자신의 나약함과 의 싸움, 그간 내려놓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과 욕심, 기대와 죄책감 수치심 등 자신에 대한 상념을 내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길이다. 이처럼 순례길은 온갖 시험과 고난의 집결체일 수도 있다. 이곳이 주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신성한 장소에 도착해서 그렇게 자신을 향하게 한 신이 주신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동기가 이들을 순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Jung의 분석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순례의 치

5) 구분식, 「가톨릭교회의 성지 순례: 기원과 중세기의 순례 중심으로」, 『현대가톨릭사상』, 27호, 2002, 35~80쪽.

유적 의미를 크게 두 갈래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 역사속에서 태동한 순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 삶과 맞닿은 순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순례를 모티브로 한 두 편의 영화 주인공의 순례 체험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기독교 역사와 순례, 그리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 1) 기독교 전통에서의 순례

사전적 의미로 '순례(pilgrimage)'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또는 신성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의 여행'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펠리그리누스(peligrinus)'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또는 '들판을 가로질러'라는 뜻의 라틴어인 '페르 아그룸(per agrum)'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sup>6)</sup>. 종교적 의미로서의 순례란 신성(神性)이 깃든 곳을 찾아가서 올리는 예배와 감사의 행위로 정의되며, 어느 종교 어느 민족에만 한정하여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순례는 중요한 기원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곧 순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구약시대부터 순례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인 성소를 찾아가 그 분을 뵈는 것을 의미하였다<sup>7)</sup>. 최초의 순례자는 아브라함이다. 그는 4천여년 전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 우르에서부터 하란,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긴 여정을 이어갔고, 그의 후손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내었다. 이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나긴 순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통일왕국을 이루었

6)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word/pilgrim>

7)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순례사목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57집, 2006, 136쪽.

다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며, 다시 돌아온 뒤로도 동서세력의 충돌 속에 놓여 있었다. 이 순례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언약의 궤가 있는 곳, 예수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

물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순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전례행위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는 구원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곧 거룩한 공간인 성전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뒤에 바울사도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교회를 건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하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지키면서 초기 교회공동체를 지켜나간 이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박해시기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독교의 순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sup>8)</sup>.

기독교 공인 후 처음에는 박해시기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하려는 목적에서 사건의 현장을 찾는 순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기의 전승을 수집하는 일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발굴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로마 황제의 후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황제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아울러 새로이 지어진 성당과 조성된 성지 주변의 상인들은 사건들과 관련된 상품들을 찾는 순례자들을 통해서 안정적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성서상의 사건이 벌어진 곳 외에도 순교자들의 시신이 묻혀 있거나 유해가 옮겨진 곳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많은 순례지가 조성되었다<sup>9)</sup>.

8) 김치완, 2013, 위의 논문, 55쪽.

중세에 들어와, 성스러운 곳으로 순례를 떠나는 일은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당시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이르는 멀고 지루한, 때로는 위험스러운 길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성경과 고전문학 작품 등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한다. 유럽 전역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순례를 떠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중반부터로 추정되며, 18세기까지 이곳에 있는 성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몰렸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순례자 안내서(The Pilgrim's Guide)가 쓰여질 정도로 순례의 열기는 대단했다고 한다. 이 순례자 안내서는 교황 칼릭스투스2세가 명하여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콤포스텔라가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고,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세력이 확장을 꾀하고 있었으므로, 산티아고 순례를 더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sup>10)</sup>.

## 2)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본 산티아고 순례길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상징성

산티아고 순례길. 오늘날 우리나라에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란 뜻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는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는 스페인 북서부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가는 순례길이다. 이 순례길은 출발 지점이나 과거 그 용도에 따라 '프랑스 길', '포르투갈 길', '북쪽 길', '은의 길', '프리미티보', '영국 길' 등의 이름이 붙은 여러 갈래 길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길인 '카미노 프랑세스(Camino Frances; 프랑스 길)'는 800여km에 이르는데, 하루 평균 25km를 걸을 때 한 달 이상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 두고 미리 체력보강 운동을 하기도 한다. 이베리아 반도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로서 중세 유럽인들에게조차 낯선 장소였던 이 기독교 성지로 향하는 길에는 오늘날까지

9) 김치완, 2013, 위의 논문, 55쪽. [구본식의 논문「가톨릭교회의 성지순례: 기원과 중세기의 순례 중심으로」, 2002, 38-42쪽을 요약·기술함].

10) 박용진, 「순례와 여행」, 『동국사학』, 53집, 2012, 168~172쪽.

수많은 순례객들과 단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길을 걷는 시간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면면들,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점들,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깊이있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길이 소개된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의 소설 『연금술사: O alquimista』와 『순례자: O diario de um mago』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된 2006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례길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중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길은 '카미노 데 프랑세스'(프랑스 사람들의 길)<sup>11)</sup>이다. 이 길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거친 흙 길, 황무지의 고된 코스에서부터 고즈넉한 숲길, 병풍처럼 둘러진 암벽의 황홀한 절경, 지평선 위로 펼쳐진 밀밭까지 순례길의 자연을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순례길의 곳곳마다 나타나는 노란 화살표와 조가비 문양들도 이 길이 야고보 사도의 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공한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분인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발견된 곳이다. 이 도시는 스페인 북서쪽 갈리시아 지방의 중심지로, 1985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sup>12)</sup>으로 선정되었는데, 2000년에는 브뤼셀, 아비뇽, 프라하, 헬싱키 등과 함께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목적지는 이곳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Cathedral of Santiago de Compostela)'으로, 여기에는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St. James)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레오 3세(795~816재위) 교황이 이곳을 성지(聖地)로 지정하면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서 3대 순례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산티아고 대성당에서는 미사 집전시 보타푸메이로

1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en/documents/140279>

12)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en/list/347>



(Botafumeiro)라는 대항로를 긴 밧줄로 당기며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는 공중그네식 전례를 진행한다. 이 역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순례자들에게 유명한 장면이라고 한다<sup>13)</sup>.

산티아고 대성당에 묻힌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구원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 축을 차지하기도 한다. 특히 스페인에는 야고보 사도와 관련된 아주 다채로운 전승이 있다. 그의 유해가 스페인으로 들어올 때는 천사가 양 옆을 붙잡고 있는 돌로 만들어진 배가 선원도 노도 없이 일주일 동안 지중해 가장 동쪽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계의 끝까지 갔다가 그가 선교했던 스페인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울러 844년 기독교도였던 라미로(Ramiro) 1세(842~850)가 이방인인 무어인들과 전투를 벌일 때 성 야고보가 기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교도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전설도 있다. 이후 성 야고보는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서 ‘마타모어(Matamore)’, 곧 ‘무어인의 정복자’로 숭상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런 기독교의 순례 역사를 잘 반영한 장소로 의미가 있다<sup>14)</sup>.

위의 전승에 대해, 혹자는 스페인 정부에서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문화 콘텐츠로 잘 승화시켰다고 보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한다<sup>15)</sup>.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문화 콘텐츠 이전에 초대교회 시기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방민족과 치열하게 싸워 온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집단무의식의 원형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Jung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조금 더 고찰해 보자.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은 Jung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가장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Freud 이론에서의 무의식과 같은 개념인 개인 무의식과 달리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여기서 ‘집단’이라 함은 그 내용들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 무의식은 인류에게 전해 내려

13)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antiago\\_de\\_Compostela\\_Cathedral](https://en.wikipedia.org/wiki/Santiago_de_Compostela_Cathedral)

14) 김치완, 2013, 위의 논문, 56쪽.

15) 김치완, 2013, 위의 논문, 54-55쪽.

은 보편적인 경향성으로서 신화적 모티브와 표상 형성의 바탕이 된다<sup>16)</sup>.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본능과 원형(archetype)이다. Jung은 집단무의식의 원형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이 신화 또는 민담이라고 하였으며, 종교성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무의식의 핵심적 원형이라고 보았다. 성 야고보 사도의 전승을 놓고 보면, 이방민족의 침략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성 야고보가 백마를 타고 기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방인들을 모두 물리친 것은 Jung의 개념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띤 내러티브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더 높은 정신성과 내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을 성 야고보 사도가 나타나 구해줌으로써, 이들이 인간 본연의 방향, 즉 전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이다. 따라서 성 야고보 사도의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합을 이루지 못해 고통 속에 살던 삶으로부터 자신의 원형의 통합, 전체성으로의 도달, 개성화 과정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Jung은 개성화 과정이 정신치료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의 목표라고 주장한 바<sup>17)</sup>, 산티아고 순례길은 바로 각 개인의 개성화 과정으로의 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일명 ‘치유의 길’,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Jung의 개념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Jung에게 있어 치유란 정신의 전체성, 전인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인간의 여러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면 깊숙이 잠재된 집단무의식과의 단절에서 찾기 때문에, 단절된 집단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에 다시금 불러와 통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sup>18)</sup>. 무의식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식하려 노력함으로써 의식화 할 수 있으며, 의식화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

16)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100쪽.

17) 김성민, 「몽골 민담 “모래언덕나라”와 C. G. 융의 개성화 과정」, 『심성연구』24권 1호, 2009, 70쪽.

18) 양승권, 「노자의 내재화된 ‘도’ 범주와 칼 융(C. G. Jung)의 ‘자기(Self)」, 『동양철학연구』, 76집, 2013, 161쪽.

로운 통찰이 일어난다. Jung은 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의식의 내용인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드러내는 겉모습인 페르조나의 반대적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감추고자 하는 측면들, 자신이 싫어하는 속성 등이 바로 그림자의 일면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그림자이다<sup>19)</sup>. Jung은 무의식이 정신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전체성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실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신의 본질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복잡다단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순례길에 나선 자신과 대면하고, 길 위에서의 예기치 않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순례자는 그 낯선사람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순례는 끊임없이 내 속에 타자(他者)를 만들고 타자 안에 존재하는 나를 만나는 행위이다. 이러한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발견을 통해 순례자는 자신의 본질에 더 다가가게 되고 자신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여 왔는지를 찾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고, 겹겹하게 자신의 한 측면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Jung이 말한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individuation)’이다. 개성화된 자아는 자기(Self)가 주체로 서게 하며 자아 자신은 자기의 객체가 된다<sup>20)</sup>.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된 자기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극의 화해와 이를 통한 전체성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Jung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한다<sup>21)</sup>.

19)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52쪽.

20) 이죽내, 「융의 분석심리학적 심리치료 개관」, 『가족과 상담』, 1권 1호, 2011, 53쪽.

21) 김정택, 「가톨릭 미사에서의 ‘구원’의 상징성」, 『심성연구』24권 2호, 2009, 211쪽.

### Ⅲ. 순례의 치유적 의미: 산티아고 순례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속 주인공들의 심리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는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을 영상과 음향을 통해 만나게 해 주는 현시성의 장르이며,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의 삶을 공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영화 역시 지금까지 문학이 해 왔던 것처럼 각 시대의 반영이며 각 사회의 기록이다<sup>22)</sup>. 이에 본 절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의 삶과 심리 분석을 통해 순례의 치유적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다.

#### 1) 영화 속 주인공이 경험한 산티아고 순례의 길

##### (1) <The Way>의 주인공 탐 에이버리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감독의 영화 <The way>는 순례의 의미를 보다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이 영화에서 종교적 의미로 순례를 알리는 뉘앙스는 강하지 않다. 오히려 길, 즉 까미노(Camino)를 걷는 데에는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과 마주한다는 메시지가 더욱 강하다.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자. 주인공인 탐 에이버리는 안과 전문의로서 노년에 접어든 시절을 평화로이 즐기고 있다. 반면 아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일과 모험을 좋아한다. 아들은 그동안 해 오던 의사 공부를 중단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며 아버지에게 산티아고 순례길 동행을 요청한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세상을 잘 모르는 철없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부터 먼저 잘 마치길 원한다. 그리고 아들의 여행 동행 요청을 거절한다. 이에 아들은 그 흔한 휴대전화도 없이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아버지에게 남기고 여행을 떠난다. 한가로이 친구들과 골프를 치던 어느날, 탐 에

22) 오진곤, 「영화와 문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현대영화연구』, 7집, 2009, 170쪽.

이버리는 아들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의 유품을 찾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의 출발지점으로 잘 알려진 생장피에드포르(St. Jean Pied de Port)에 도착한 탐은 아들의 유해 앞에서 한없는 회한에 휩싸이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들의 유골을 품고 산티아고 순례의 여정을 대신 떠난다.

결심은 했지만 이런 불편한 여행은 처음이었던 탐에게는 만만치 않은 이 순례의 길이 보통 고행길이 아니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에 있는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시작해 "성 제임스"의 유해가 묻혀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 스텔라"까지 스페인 북서해안 800km의 여정을 오로지 걸어서 도착하는 길. 아들의 유해함이 담긴 배낭을 절벽아래 떨어뜨리는 바람에 미친 듯이 계곡 물과 사투를 벌이며 배낭을 지키기도 하고, 잘 곳이 없어 헤매다가 무심하고 친절하지 않은 여관 주인에게 겨우 한 자리를 받아 끼니를 굶은 채 쪽잠을 자기도 한다. 이처럼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순례길을 걷는 탐. 하지만 그는 이 길에서 '사람'을 만난다. 먹는걸 좋아하면서 살을 빼기 위해 까미노를 걷는 네덜란드 사람도 만나고, 성야코보성당에 도착하면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담배를 늘상 입에 물고 다니는 까칠한 여성도 만나고, 글 쓸 소재를 못 찾아 고뇌하는 인기 없는 작가도 만난다. 그렇게 순례길 중에 만난 세 명은 어느덧 한 팀이 된 것처럼 탐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각자가 살아온 인생, 까미노를 걷는 목적, 생각과 철학이 다르지만 길을 걸으며 이들은 소통하고, 같이 느끼고,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계속해 간다.

탐은 이미 세상에 없는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과 동행함을 느낀다. 바람부는 언덕에서 만나고, 과도치는 해변에서 만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만난다.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보타푸메이로(Botafumeiro) 대향로의식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발견한다. 뜻하지 않게 순례의 여정을 거치면서 탐은 비로소 아들을 한 '사람'으로서 만난다. 그 아들이 항상 그와 함께 걸었고, 탐 역시 아들의 마음을 느꼈다.

잔잔하고 묵직한 감동을 주는 이 영화는 순례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순례길 위에서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지, 누구든

처음 만나는 사람도 다 동고동락하는 친구가 되는 신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You don't choose life Dad, You live one(아버지, 삶은 선택하는게 아니예요. 그저 살아내는 것이지요)”이다. 이 말의 의미는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리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있는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다.

## (2) <나의 산티아고>의 주인공 하페 케르켈링

이 영화는 독일의 유명 코미디언 하페 케르켈링의 에세이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 나의 산티아고 길 여행』<sup>23)</sup>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하페는 어느 날 스탠딩 토크쇼를 하던 중에 쓰러진다. 응급실에 실려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그는 의사로부터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무조건 석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처방을 받는다. 꼼짝없이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을 보내던 하페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신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마침 접하게 된 《기쁨의 야고보 길》을 읽은 하페는 ‘산티아고의 길 순례’를 결정한다. 프랑스 길, 즉 프랑스 남부 국경 마을 생장피에포르(Saint-Jean-Pied-de-Port)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까지 이어지는 800km의 순례 대장정에 오른 하페는 첫날부터 폭우와 마주친다. 허름하고 붐비는 숙소에 발바닥의 물집까지 생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악한 환경과 마주하는 순례길은 험하기 그지없다. 계다가 홀로 걷는 외로움도 하페가 싸워야 하는 요소이다. 코미디언인 만큼 우스꽝스럽게 상황대처를 하기도 하는 하페. 걷다가 너무 힘들면 가끔 농부의 차도 얻어타고, 버스를 이용하는 잔꾀를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20~30km의 길을 걸으며 순례를 이어간

23) Kerkeling, H.(박민숙 역),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 나의 산티아고 길 여행』, 은행나무, 2016.

다. 그 42일간의 여정 동안 하페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신부님과 대화 속에서 의문을 가졌던 하나님의 존재,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색과 회의,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나간다.

매일같이 하루 일과를 기록하면서 하페는 삶과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에 채워간다. 놀랍게도 그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산티아고 길의 힘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신의 존재를 확신하고, 순례를 끝내는 순간 각자가 찾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다. 하지만 하페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진다.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걸어서 산티아고까지 갈 수 있을까? 순례의 종착점까지 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 내 인생 또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가면서 하페는 자신의 내면에서 '치유의 순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아스토르가(Astorga)로 가는 포도밭 한가운데 하페는 우뚝 서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왜 그랬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나와 당신'으로,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난다. 일종의 카타르시스 처럼, 그는 끊임없이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어오던 신과의 아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다. 순례길에서 만난 스텔라와 레나 등 동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포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치고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 역시 새롭게 받아들인다.

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시종일관 하페의 솔직한 신앙 체험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 펼쳐진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하페와 함께 순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또 진지하게 관객을 안내한다. 주인공인 하페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신은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하페는 “모든 것을 차례차례 돌이켜보면 길 위에서 신은 나를 끊임없이 공중에다 던졌다가 다시 붙잡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마주쳤다”라고 고백한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고민했던 하페는 산티아고 길을 걸어갈수록 산티아고에 가까워질 뿐 아니라 그는 스스로에게도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내면이 파헤쳐진 공사 현장 같다고 느끼는 그는 애써 밀어냈던 자신의 어두운 그늘을 고통스러우면서도 담담한 가운데 직시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진지한 만남에 성공하게 된다.

## 2)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경험한 순례의 치유적 의미

두 편의 영화 모두 나름 일상에서 잘 지내거나 소위 ‘잘 나가던’ 주인공들이 갑작스럽게 만난 좌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두 주인공이 순례길에서 마주하는 만남의 본질은 서로 다르게 그려진다. 두 주인공이 경험한 순례의 치유적 의미를 분석심리학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아들과 아버지의 화해, 그리고 아버지의 페르조나와 그림자 간의 화해

영화 “The Way”의 주인공 탐 에이버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들에 대한 애도 과정으로, 아들의 유골과 함께 산티아고 길 순례를 떠난다. 이전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 양상으로 말이다. 서로가 대면하며 생생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모습이 아닌, 유골함에 들어있는 아들과 살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 순례길에 오른다. 함께 순례길을 가지만 정작 둘은 대화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탐은 늘 순례길 곳곳에서 아들을 만난다. 탐의 마음 속에 아들은 지금까지 현시적인 모습이 아닌 새로운 타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들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아들이 생각한 삶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온 것에 대한 회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살아왔고, 아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한 나머지 정작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등... 스스로에 대해 용서하기 어려운 면들을 만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주의적인 아들을 답답해 했던 아버지, 그 아들의 모습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로 볼 수 있다. Jung은 그림자는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열등한 측면이라고 했다. 자아가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up>24)</sup>. Jung이 말하는 그림자에 대한 통찰이란 바로 자신 안의 열등한 인격에 대한 자기인식이다<sup>25)</sup>. 자신이 싫어하는 타인의 면모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다 겸허하고 여유롭게 바라보며, 타인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치유로 향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자신을 보다 겸허히 또 넓은 폭으로 수용하는 것의 첫걸음이 된다. 따라서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인식하고 의식화할 때 의식의 균형을 이루어 가고 성장으로의 길로 갈 수 있다.

## (2) 순례길에서 만난 신과의 관계를 통해, 개성화의 과정으로

영화 “나의 산티아고”의 주인공 하폐 케르켈링은 과로로 쓰러진 후 무조건 쉬라는 의사의 말에 따른다. 너무나도 바쁜 연예인의 일상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다. 순례의 길 곳곳에서 하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20대때 연예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내면에 묻어 두었던 깊숙한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자신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마주한다. 하폐는 순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간 늘 떠들썩하게 살던 삶에서 너무 무료해지기 싫어서 자신에게 말 걸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었는데, 순례가 진행되면서 점차 보

24) 이부영, 1999, 위의 책, 41쪽.

25) 이부영, 1999, 위의 책, 184쪽.

다 깊이있는 삶의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쪽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간다. 예컨대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이해하지 못함’이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고통이란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결국 혼자 가야한다’는 존재론적 외로움을 경험하며, 하폐는 묵묵히 순례를 계속한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여 만천도 부리고 편리한 교통편과 호텔을 찾지만 점차 고통스러운 순례길을 감내하게 된다. 외로움이 너무 싫어 순례를 그만두려 했다가 점차 모든 걱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호흡만을 느끼며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위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텅 빈 자신을 느끼면서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현실의 고통을 떠안고 출발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무의식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딱딱뜨린 외로움,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와 하나님이 할머니를 미워하면 좋겠다고 외치는 아이의 모습... 하폐가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기억 저편 무의식 속에 담아두었던 모습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페르소나를 벗어내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폐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개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깨달음은 “걸다보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 것, 기대하지 말 것. 이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 이처럼 하폐는 순례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만나고, 무의식 속 기억들을 의식화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만난다. 그리고 본연의 개성을 발휘하는 개성화 과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완성한다.

## V. 마치며

본고에서는 순례의 의미를 기독교 역사 속 순례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과, 영화 속 주인공의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을 분석함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인공들이 경험한 순례의 치유적 의미를 나와 나,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

한 치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순례가 갖는 치유적 의미의 핵심은 무의식을 의식화함을 통해 성장하고 마침내 개성화에 다다른 자기실현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순례의 과정 중에 하게 됨으로써, 이전 보다는 더 성장한 자신, 이전보다 더 여유있고 큰 그릇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순례길은 우리 내면의 근원인 신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Jung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내면의 종교성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순례길 체험은 유구한 역사동안 전승되어 온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신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보편적 인류애, 인간 존재가 갖는 가치 또한 사람들이 깨닫게 해 주는 통로가 된다. 앞서 하폐가 고백한 것처럼, 순례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존재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성찰하게 되고,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한 방향성 또한 새로이 세울 수 있게 된다.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서서 고유한 자신만의 가치와 살아갈 바를 발견하는 길, 이것이 바로 '순례'의 의미를 가득 담은 순례길이 갖는 가치가 아닐까 한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순례자(O diario de um mago)』에서,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sup>26)</sup> 고 했다. “나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 나의 꿈을 발견하고,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또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지만, 또 나와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26) Coelho, P. (박명숙 역), 『순례자』, 문학동네, 2006, 10~11쪽.

### 〈참고문헌〉

- 구본식, 「가톨릭교회의 성지 순례: 기원과 중세기의 순례 중심으로」, 『현대 가톨릭사상』, 27호, 2002, 35-80쪽.
-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 김성민, 「몽골 민담 “모래언덕나라”와 C. G. 융의 개성화 과정」, 『심성연구』 24권 1호, 2009, 69-102쪽.
- 김정택, 「가톨릭 미사에서의 ‘구원’의 상징성」, 『심성연구』 24권 2호, 2009, 211-246쪽.
- 김재현, 「중세기독교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1집, 2008, 207-244쪽.
- 김치완,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道)」, 『인문콘텐츠』 30집, 2013, 49-65쪽.
- 민슬기, 「스페인 산티아고 길 도보순례의 의미와 소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박용진, 「순례와 여행」, 『동국사학』, 53집, 2012, 167-195쪽.
- 박인정, 이영관, 「여행치료와 자기실현: 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권 6호, 2016, 21-33쪽.
- 송영민, 강준수, 「도보여행의 효과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관광학연구』, 38권 7호, 2015, 35-55쪽.
- 양승권, 「노자의 내재화된 ‘도’ 범주와 칼 융(C. G. Jung)의 ‘자기(Self)」, 『동양철학연구』, 76집, 2013, 157-191쪽.
- 오진곤, 「영화와 문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현대영화연구』, 7집, 2009, 167-193쪽.
-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순례사목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57집, 2006, 129-151쪽.
-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 이죽내, 「융의 분석심리학적 심리치료 개관」, 『가족과 상담』, 1권 1호, 2011, 41-70쪽.
- 이승철, 강찬구, 이민훈, 이은미, 「힐링을 힐링하다: 힐링열풍의 배경과 발전

- 방향」, 『CEO Information 897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 1-19쪽.
- 임경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체험에 대한 평생학습적 의미」,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Coelho, P. (박명숙 역), 『순례자』, 문학동네, 2006.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word/pilgrim>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en/documents/140279>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en/list/347>
- Wikipedia*, 산티아고 대성당, [https://en.wikipedia.org/wiki/Santiago\\_de\\_Compostela\\_Cathedral](https://en.wikipedia.org/wiki/Santiago_de_Compostela_Cathedral)
- 영화 <The way> 2010년 작.
- 영화 <나의 산티아고> 2015년 작.

〈Abstract〉

# The Healing Meaning of Pilgrimage

- Focusing on Camino de Santiago -

Park, Seung Min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healing meaning of pilgrimage b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documents and the experiences of the film characters in the Santiago pilgrimage. C. G. Jung 's analytical psychological concepts were applied to derive the healing meaning. The meaning of the pilgrimage to Santiago can be understood as the flow of Christian history for 2,000 years and the emergenc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formed based on the history of Spain 's history of trying to root Christian culture under the war with foreign nations at that time. For Jung, healing is the restoration of the totality of the mind, the whole personality. Much of the unconsciousness can be made conscious by trying to actively recognize, and through the process of consciousness, new insights arise for us.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neself, and also in relation to oneself and others, the pilgrims become closer to their essence and can find out what they really are pursuing.

**Key Words:** pilgrimage, healing, Camino de Santiago, Analytical  
Psychology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